

# 조선시대 3X2칸 주불전지 복원을 위한 현존 주불전과의 평면 계획비교에 관한 기초연구

김환철<sup>1</sup>, 안대환<sup>2\*</sup>

<sup>1</sup>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sup>2</sup>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A Basic Study on the Comparison for Restoration with 3x2 Kan Central Hall Remains and Extant Hall of Buddhist Temple in Joseon Dynasty

Hwan-Chol Kim<sup>1</sup>, Dai-Whan An<sup>2\*</sup>

<sup>1</sup>Dept. of History&Culture Contents, Sunmoon University

<sup>2</sup>Dept. of Architec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조선시대 주불전은 발굴지와 현존하는 건물이 동시에 존재하여 서로 비교하여 발굴지를 복원하는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3X2칸 주불전은 주불전의 기능을 하는 최소한의 규모로서 평면계획에서 비교항목의 수가 적어 유사성을 확인하고 복원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기초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조선시대 건립된 3x2칸 주불전지와 가장 유사한 평면계획을 가진 현존 불전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건축형식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대상은 3x2칸 주불전 발굴지 3개소와 29개의 현존하는 주불전이다. 평면계획에서의 비교항목은 절대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면적, 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 상대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 정면어칸길이/측면어칸길이의 비율로 하였다. 복지장사 대웅전 발굴지의 평면계획은 오어사 대웅전과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의 모든 면에서 유사성이 높았다. 안동 선찰사지 대웅전 발굴지는 고창 상원사 대웅전과는 면적, 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에서 유사하며 대적사 극락전과는 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 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에서 유사성이 높았다. 승선사지 대웅전 발굴지는 서동사 대웅전과 면적, 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 정면어칸길이/측면어칸길이의 비율에서 유사성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비교항목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다른 비교항목을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존 사례간의 유사성 비교를 통하여 발굴지에 원래 있었던 건물에 대한 추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find the extant central halls with the plan most similar to the remains and to find out and compare the architectural style of extant buildings for the restoration. In the Joseon dynasty, there existed both remains and the extant hall. In particular, the 3x2Kan hall is the minimum size that functions as the hall, so the number of comparison articles is small. The subjects are three remains and 29 Extant Halls. The absolute size of the comparison articles are the Area, Ratio of front /side, and the relative sizes are the Ratio of front Eokan/Hyeopkan and Ratio of the front Eokan/the side row. The Daeungjeon remain in Bugjijangsa is similar in absolute size and relative sizes to Oeosa daeungjeon. The Bubdang remain in Seonchalsaji is similar to Sangwonsa daeungjeon in the Area and Ratio of front/side, and similar to Daejeogsa geungnakjeon in the Ratio of front/side and Ratio of front Eokan/Hyeopkan. The Bubdang remain in Seungseonsaji is similar to Seodongsa daeungjeon in the Area, Ratio of front Eokan/Hyeopkan and Ratio of the front Eokan /the side row. Consequently, this method has high value as a way to expand by other comparison articles.

**Keywords** : Central hall remains, Restoration data, Basic material system, comparison with the extant hall, floor plan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005)

\*Corresponding Author : Dai-Whan An(ChungBuk National Univ.)

Tel: +82-43-261-2434 email: an4229@cbnu.ac.kr

Received September 7, 2018

Revised (1st October 4, 2018, 2nd October 24, 2018, 3rd November 1, 2018, 4th  
November 5,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세기 삼국시대에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불전이 건립되어 왔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사찰 불전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건립 및 증건된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시대는 다수의 발굴지와 현존 불전이 공존하는 시기이므로 같은 시기의 발굴지와 현존 불전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발굴지를 복원하기에 가장 많은 자료가 존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며 상호 보완하면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문헌에 의한 자료, 유사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발굴지에서 추출된 자료 등 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복원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발굴지를 본다는 것은 발굴지에 존재하였던 불전의 모습을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굴지에 대한 자료와 현존 불전을 비교하여 유사한 불전을 찾는 체계가 있다면 발굴지에 원래 있었던 건물에 대한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진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어떠한 방식이라고 복원을 하고자 한다면 복원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유사도가 높은 현존 건물들을 찾을 수 있다면 상부가구 등 기존의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장 완성되고 정교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원에는 한 가지 기준과 방법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지만 발굴지에서 추출된 평면 계획은 당시의 건물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존 주불전과 발굴지의 평면을 비교하는 것은 복원 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발굴지의 진정성과 완전성, 지속적인 보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자료 등을 정리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면 예전 건물에 대한 추정 뿐 아니라 다른 발굴지의 복원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원의 방향과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이 연구는 평면 규모가 드러난 조선시대 사찰 주불전 발굴지를 복원의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일련의 연구 중에서 하나이다[1,2]. 기존 연구가 발굴지와 현존 건물의 비교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비교의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면 이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발굴지와 유사성이 높은 현존 주불전을 택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사성이 높은 현존 주불전들에 대한 자료를 서로 비교해봄으로써 발굴지에 있었던 주불전의 건축형식을 추정하여 제안한 방식이 자료를 축적하는 방법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복원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축적 뿐 아니라 복원의 관점에서 봄으로서 발굴지에 있었던 예전의 건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을 보였다. 추후 발굴지의 특수성을 지키면서도 발굴지와 현존 불전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을 제안하여 복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일반적인 발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해당 발굴지의 자료 축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의 대상은 조선시대 건립된 사찰 주불전중에서 3x2칸 주불전의 발굴지 3개소이다. 그리고 이들 발굴지와 가장 유사한 조선시대 건립된 현존하는 주불전은 29동이다[3].

주불전을 택한 이유는 주불전은 사찰 건물군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평면 형식을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물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4].

3x2칸 건물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정면과 측면, 어칸과 협칸 등 평면을 구성을 확인하고 불전 건축의 가구구성, 구조 형식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최소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교항목으로 유사성이 높은 현존 건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는 조선 중기 이후 국가 및 사찰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불전양식이어서 측면의 길이 제약으로 기존 불전과 달리 평면 및 가구 구성 등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 즉 불전의 측면의 규모는 축소하지만

주불전의 위상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원래 건립되었던 상태에서 변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3x2칸의 주불전은 17세기 이후 즉면 3x3칸 건물 다음으로 많이 건립된 건물이며 3X3칸 형식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1].

비교대상인 현존하는 주불전은 문화재로 지정된 주불전에 한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대부분 실측하여 도면이 작성되어 있어 평면 계획을 비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발굴지는 대구 동구 북지장사 상층 건물지, 충주 안동선찰사지 법당, 송전사지 법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굴지를 다수 선택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확장가능성이 있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 개의 사례에 대하여 방법론이 적용되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사례와 적은 항목에서 유사성이 적은 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유사성이 적더라도 현존 사례 중에서는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복원에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복원의 관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첫 번째로는 발굴지의 평면 계획과 현존 주불전의 평면 계획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추출된 유사성이 높은 현존 불전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현존자료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유사한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복원의 자료에 사용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성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항목에서 유사한 정도가 높은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는 발굴지의 평면계획과 현존 주불전의 평면계획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자료 등에 의한 창건연대, 건축구조양식, 지역적 특징 등 다양한 항목들이 복원에 사용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발굴지에서 얻은 직접자료인 평면계획만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비례 체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평면 계획 중에서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를 구분하여 비례체계를 비교하였다.

비교항목을 보면 절대적인 규모는 정면길이와 측면길이를 바탕으로 하는 ①면적, ②정면길이/측면길이로서

건축물의 전체적인 비례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두 번째 비교의 개념은 상대적인 규모로서 주칸계획을 비교하는 것이다. 주칸 계획은 정확한 길이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부가구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계획체계이다. 이에 따라서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을 요소로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면계획 중에서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를 구분하고 비교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요소로서 현존하는 불전과 비교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단계로는 유사하다고 선택한 현존자료 사이에 평면계획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상부가구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다. 유사한 현존 불전은 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상호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은 발굴지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존자료간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복원의 자료로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어떤 항목을 복원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앞선 연구[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교는 비교항목을 확장하여 문헌자료 등에서 추출한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한 현존 건물에 대한 비교는 기초연구로서 중요한 부분으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Remains of 3x2 Kan central hall

Name of sites	location	name
Bugijjangsa	Daegu dong-gu	Daeungeon of Upper layer remain
Seonchalsaji	Gyeongbuk Andong	bubdang of remain
Seungseonsaji	Chungbuk chungju	bubdang of Ind remain

## 2. 현존 불전과 발굴지의 개요

### 2.1 3x2칸 현존 불전의 개요

3x2칸 불전이 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조선 건국 이후 지속된 송유역불 정책과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두 양난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제정 및 사찰의 경제적 악

Table 2. Example of analyzed Data the extant 3x2 hall list

No	Name of Building	Front			Side			① Area	② Ratio of length Front / side	③ Ratio of front Eokan length to Hyeopkan length	④ Ratio of front Eokan length to side length	Bracket Sets	Roof	stylobate	Ceiling	Building Year
		All Length	Eokan	Hyeopkan	All Length	Eokan	Hyeopkan									
1	Seonggusa Daeungjeon	6,760	2,460	2,150	4,320	2,160	2,160	29.203	1.564	1.144	1.138	3-Ikkong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803
2	Sangwonsa Daeungjeon	6,670	2,430	2,120	4,560	2,280	2,280	30.415	1.462	1.146	1.065	2-Ikkong/Ikkong	Gabled-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734
3	Dabosa Daeungjeon	6,960	2,520	2,220	4,380	2,190	2,190	30.484	1.589	1.135	1.150	Jusimpo	Gabled-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Rafter ceiling	1850
4	Daejeogsa Geungnakjeon	6,867	2,461	2,275	4,627	2,288	2,339	31.773	1.484	1.081	1.075	Dapo	Gabled-Roof	Post-lintel Construction	Compartment Ceiling	1754
5	Yongdamsa Mulyangjeon	7,150	2,800	2,200	4,450	2,250	2,200	31.817	1.606	1.272	1.244	lkkong	Gabled-Roof	Natural Stone	Rafter ceiling	1574
6	Yeongjisa Daeungjeon	7,230	2,790	2,220	4,440	2,220	2,220	32.101	1.628	1.256	1.256	Dapo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774
7	Sujeongsa Daeungjeon	7,470	2,490	2,490	4,740	2,370	2,370	35.407	1.575	1.000	1.050	Dapo/Ikkong	Gabled-Roof	Long Pedestal Stone	Rafter ceiling	1715
8	Buljisa Daeungjeon	6,720	2,400	2,160	5,300	2,650	2,650	35.616	1.267	1.111	0.905	Dapo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ffered Ceiling	1629
9	Jeongamsa Jeogmyeol bogung	7,306	2,407	2,450	4,986	2,490	2,496	36.427	1.465	0.982	0.966	Jusimpo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771
10	Bomunsa Geungnakjeon	7,740	2,940	2,400	4,800	2,400	2,400	37.152	1.612	1.225	1.225	lkkong	Gabled-Roof	Natural Stone	Rafter ceiling	1791
11	Cheongamsa Bogwangjeon	7,680	2,760	2,460	4,920	2,460	2,460	37.785	1.560	1.121	1.121	Dapo/Ikkong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ffered Ceiling	1905
12	Bonggogsa Daeungjeon	7,740	2,580	2,580	4,960	2,480	2,480	38.390	1.560	1.000	1.040	2-Ikkong/Ikkong	Gabled-Roof	Natural Stone	Rafter ceiling	1647
13	Bodeogsa Geungnakjeon	7,770	2,780	2,470	4,980	2,490	2,490	38.694	1.560	1.125	1.116	2-Ikkong	Gabled-Roof	Long Pedest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890
14	Seonwonsa Daeungjeon	8,820	2,960	2,930	4,860	2,430	2,430	42.865	1.814	1.010	1.218	lkkong	Gabled-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961
15	Woljeongsa Jeogmyeol bogung	7,509	2,470	2,524	5,956	2,990	2,966	44.723	1.260	0.978	0.826	2-Ikkong	Hip & Gable-Roof	Long Pedestal Stone	Coffered Ceiling	1878
16	Sinheungsa GuDaeungjeon	7,900	2,840	2,530	5,670	2,830	2,840	44.793	1.393	1.122	1.003	lkkong	Hip & Gable-Roof	Long Pedestal Stone	Coffered Ceiling	1752
17	Seodongsa Daeungjeon	8,040	3,720	2,160	5,580	2,790	2,790	44.863	1.440	1.722	1.333	lkkong	Gabled-Roof	3-Long Pedestal Stone	Coffered Ceiling	1870
18	Janggogsa HaDaeungjeon	8,656	3,678	2,490	5,565	2,785	2,780	48.170	1.555	1.477	1.320	Dapo	Gabled-Roof	Natural Stone	Coffered Ceiling	1777
19	Munsusa Daeungjeon	8,790	3,150	2,820	5,700	2,850	2,850	50.103	1.542	1.117	1.105	Dapo	Gabled-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835
20	Jeonghyesa Daeungjeon	8,435	2,760	2,840	5,945	2,965	2,980	50.146	1.418	0.971	0.930	Dapo	Hip & Gable-Roof	Long Pedest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617
21	Jeongsusa Daeungjeon	9,200	3,900	2,650	5,520	2,760	2,760	50.784	1.666	1.471	1.413	Dapo	Gabled-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 Oblique ceiling	1708
22	Eungseogsa Daeungjeon	9,640	3,280	3,180	6,360	3,180	3,180	61.310	1.515	1.031	1.031	Dapo	Hip & Gable-Roof	Post-lintel Construction	Coffered Ceiling	1736
23	Sunglimsa Bogwangjeon	9,241	3,053	3,105	6,766	3,344	3,422	62.524	1.365	0.983	0.912	Dapo	Gabled-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613
24	Oeosa Daeungjeon	9,720	3,240	3,240	6,480	3,240	3,240	62.985	1.500	1.000	1.000	Dapo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741
25	Cheonglyangsa Yulbojeon	9,510	3,170	3,170	6,720	3,360	3,360	63.907	1.415	1.000	0.943	Dapo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705
26	Sinleugsa Geungnakbojeon	10,690	3,676	3,507	7,035	3,505	3,530	75.204	1.519	1.048	1.048	Dapo	Hip & Gable-Roof	3-Long Pedestal Stone	Compartment / Oblique ceiling	1797
27	Daegogsa Daeungjeon	11,310	3,770	3,770	7,460	3,730	3,730	84.372	1.516	1.000	1.010	Dapo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mpartment Ceiling	1605
28	Biamsa Geungnakbojeon	11,550	3,850	3,850	7,700	3,850	3,850	88.935	1.500	1.000	1.000	Dapo	Hip & Gable-Roof	Natural Stone	Coffered Ceiling	미상
29	Janggogsa SangDaeungjeon	12,534	4,163	4,219	7,707	3,823	3,884	96.599	1.626	0.986	1.088	Dapo	Gabled-Roof	Natural Stone	Rafter ceiling	1777

화, 목재수급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유로 전각의 규모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소 규모로서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주불전을 건립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3x2칸형 불전이 다수 건립되었다. 3x2칸 주불전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1].

조선시대 안에서도 척도의 변화, 시대상의 변화 등이 있고 현존 불전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근본적인 평면 계획의 원리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현존 불전과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 연구는 발굴지와 유사한 현존사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하였고 그 이후 각각의 유형을 분류하여 복원을 위한 자료 활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 2.2 발굴지 개요

발굴지에 있었던 건물에 대한 창건 또는 중건 연대를 찾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발굴지의 불전들은 가능한 조선 중기에 창건 또는 중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 2.2.1 대구 동구 북지장사(대구 동구 北地藏寺) 상층 건물지

대구 동구 북지장사는 18세기의 비문에 신라 고찰이라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에 이 사찰이 11세기에 거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온다.



Fig. 1. Daeungeon of Upper layer remain in Bugijangsa

발굴된 유물로 보아 조선 중기 전후의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의 규모는 9.6x6.4m의 규모를 가진다. 기단의 규모는 13.0x10.5m의 규모를 가진다[5].

### 2.2.2 안동 선찰사지(안동 仙刹寺址)

안동 선찰사지는 발굴 당시 작은 초가와 와가가 한 채씩 있었고 사찰 건물로는 산신각만이 남아 있었는데 1949년 소실된 후 터만 있었다.

영가지(永嘉誌)에 의하면 17세기 초반에 이미 절이 건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초창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중앙칸에는 오른쪽 협칸과의 경계에 치우쳐 지름 500~700mm의 돌들이 지름 2.2m의 원형으로 있는데 불상 안치를 위한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규모는 6.5x4.4m의 규모를 가진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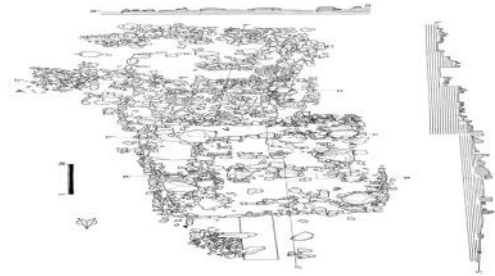


Fig. 2. Bubdang of remain in Seonchalsaji

### 2.2.3 충주 송선사지(충주 崇善寺址)



Fig. 3. Bubdang of remain in Seungseonsaji

충주 송선사지는 발굴 당시 당간지주만 남아 있었다. 몇 차례의 학술조사와 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기와조각의 명문에 의하여 성종 10년(1479), 명종 6년(1551), 선조 12년(1579) 등 세 차례에 걸쳐 중수된 것으로 짐작되며, 출토된 유물로 보아 조성 시기는 1551년에서 1579년 사

이로 추정된다.

건물의 규모는 9.0x5.0m의 규모를 가진다. 기단의 규모는 10.0x6.0m의 규모를 가진다[7].

### 3. 3x2칸 현존 주불전과의 비교를 통한 자료 구축

3.1 장에서는 발굴지의 ①면적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례를 먼저 선택하였다. 그리고 ①면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비교항목으로서 ②정면길이/측면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두 번째 비교를 하였다.

3.2 장에서는 발굴지의 ③정면 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례를 먼저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비율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비교항목으로서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두 번째 비교를 하였다. 그래서 두 개의 항목 모두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즉 절대적인 규모에서 2개의 비교항목을, 상대적인 규모에서 2개의 비교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어느 하나의 비교항목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비교항목에서 유사성이 높은 주불전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주불전 발굴지의 사례를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은지 유사성이 낮은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 3.1 절대적 규모요소에 의한 비교

##### 3.1.1 대구 동구 복지장사 대웅전 상층 건물지

대구 동구 복지장사 대웅전 건물지 ①면적은 61.44㎡이며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은 1.50이다. ①면적으로 보면 응석사 대웅전, 송림사 보광전, 오어사 대웅전이 유사하다.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로 보면 오어사 대웅전과 비암사 극락보전이 1.500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비암사 극락보전의 ①면적은 88.935㎡로서 다른 사례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하나의 비교항목에서만 유사한 사례로서 이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응석사 대웅전은 1.515로 약간 다르다. ①면적과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에서 보면 오어사 대웅전과 응석사 대웅전이 복지장사 대웅전 상층 건물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Similarity comparison based on area

Name of Building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Eungseogsa Daeungjeon	Sunglimsa Bogwangjeon	Oeosa Daeungjeon
Front	9,600	9,640	9,241	9,720
Side	6,400	6,360	6,766	6,480
Area	61.440	61.310	62.524	62.985
Ratio of Front/side	1.500	1.515	1.365	1.500

Table 4. Similarity comparison based on ratio of front length / side length

Name of Building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Oeosa Daeungjeon	Biamsa Geungnakbojeon	Eungseogsa Daeungjeon
Front	9,600	9,720	11,550	9,640
Side	6,400	6,480	7,700	6,360
Area	61.440	62.985	88.935	61.310
Ratio of Front/side	1.500	1.500	1.500	1.515

##### 3.1.2 안동 선찰사지 범당

안동 선찰사지 범당 ①면적은 28.600㎡이며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은 1.477이다. ①면적으로 보면 선국사 대웅전, 상원사 대웅전, 다보사 대웅전, 등이 유사하다. 그 중에서 선국사 대웅전이 29.203㎡으로 가장 유사성을 보인다.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이 가장 유사한 것은 대적사 극락전으로 1.484이다. 그러나 ①면적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원사 대웅전이 절대적인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절대적인 규모의 측면에서는 상원사 대웅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Table 5. Similarity comparison based on area

Name of Building	bubdang of remain	Seongugsa Daeungjeon	Sangwonsa Daeungjeon	Dabosa Daeungjeon
Front	6,500	6,760	6,670	6,960
Side	4,400	4,320	4,560	4,380
Area	28.600	29.203	30.415	30.484
Ratio of Front / side	1.477	1.564	1.462	1.589

**Table 6.** Similarity comparison based on ratio of front length / side length

Name of Building	bubdang of remain	Daejeogsa Geungnakjeon	Jeongamsa Jeogmyeolbong	Sangwonsa Daeungjeon
Front	6,500	6,867	7,306	6,670
Side	4,400	4,627	4,986	4,560
Area	28.600	31.773	36.427	30.415
Ratio of Front / side	1.477	1.484	1.465	1.462

**3.1.3 충주 송선사지 1차 중건 금당지**

충주 송선사지 1차 중건 금당지 ①면적은 45.00m<sup>2</sup>이며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은 1.80이다. ①면적으로 보면 서동사 대웅전, 신흥사 구대웅전, 월정사 적멸보궁이 유사하다. 그 중에서 서동사 대웅전이 44.863m<sup>2</sup>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로 선원사 대웅전이 1.814로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정수사 대웅전과 영지사 대웅전은 ①면적과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의 항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Table 7.** Similarity comparison based on area

Name of Building	bubdang of Ind remain	Seodongsa Daeungjeon	Sinheungsa GuDaeungjeon	Woljeongsa Jeogmyeolbong
Front	9,000	8,040	7,900	7,509
Side	5,000	5,580	5,670	5,956
Area	45.000	44.863	44.793	44.723
Ratio of Front/side	1.800	1.44	1.393	1.260

**Table 8.** Similarity comparison based on ratio of front length / side length

Name of Building	bubdang of Ind remain	Seonwonsa Daeungjeon	Jeongsusa Daeungjeon	Yeongjisa Daeungjeon
Front	9,000	8,820	9,200	7,230
Side	5,000	4,860	5,520	4,440
Area	45.000	42.865	50.784	32.101
Ratio of Front/side	1.800	1.814	1.666	1.628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①면적에서는 서동사 대웅전,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의 측면에서는 선원사 대웅전이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①면적과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의 항목 모두 유사한 사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2 상대적 규모요소에 의한 비교**

**3.2.1 대구 동구 북지장사 대웅전 상층 건물지**

대구 동구 북지장사 대웅전 상층 건물지의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은 1.000, ④정면어칸 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은 1.000이다.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과 가장 유사한 비율로 분석된 현존하는 건물로 대곡사 대웅전, 봉곡사 대웅전, 비암사 대웅전, 수정사 대웅전, 오어사 대웅전, 청량사유리보전 등이 6개 동에 이른다.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과 가장 유사한 비율로 분석된 현존하는 건물로는 비암사 극락보전, 오어사 대웅전, 신흥사 구대웅전 등이 있다. 중 비암사 대웅전과 오어사 대웅전은 비율은 1.000으로 비교 발 굴지와 동일하다.

**Table 9.**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in Bugjijangsa, Front Eokan & Front Hyeopkan

Name of Building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Sujeongsa Daeungjeon	Daegogsa Daeungjeon	Oeosa Daeungjeon	
Front	Length	9,600	7,470	11,310	9,720
	Eokan	3,200	2,490	3,770	3,240
	Hyeopkan1	3,200	2,490	3,770	3,240
	Hyeopkan2	3,200	2,490	3,770	3,240
Ratio	1.000	1.000	1.000	1.000	

**Table 10.**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in Bugjijangsa, Front Eokan & Side Hyeopkan

Name of Building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Biamsa Geungnakbojeon	Oeosa Daeungjeon	Sinheungsa GuDaeungjeon	
Front Eokan	3200	3850	3240	2840	
Side	Eokan	3200	3850	3240	2830
	Hyeopkan	3200	3850	3240	2840
Ratio	1.000	1.000	1.000	1.003	

**3.2.2 안동 선찰사지 법당**

안동 선찰사지 법당 건물지의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은 1.095,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 길이의 비율은 1.045이다.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과 가장 유사한 비율로 분석된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적사 극락전, 불지

사 대웅전, 문수사 대웅전등이 있고 이중 대적사 극락전이 1.081로 가장 유사 사례로 분석 되었다.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과 가장 유사한 비율로 분석된 현존하는 불전으로는 신록사극락보전, 봉곡사 대웅전, 수정사 대웅전 등이 있고 그 중에서 신록사 극락보전이 1.048로 가장 유사 사례로 분석 되었다.

결과적으로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과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현존 건물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11.** Bubdang of remain in Seonchalsaji, Front Eokan & Front Hyeopkan

Name of Building		bubdang of Ind remain	Daejeogsa Geungnakjeon	Buljisa Daeungjeon	Munsusa Daeungjeon
Front	Length	6,500	6,867	6,720	8,790
	Eokan	2,300	2,461	2,400	3,150
	Hyeopkan1	2,100	2,275	2,160	2,820
	Hyeopkan2	2,100	2,131	2,160	2,820
	Ratio	1.095	1.081	1.111	1.117

**Table 12.** Bubdang of remain in Seonchalsaji, Front Eokan & Side Hyeopkan

Name of Building		bubdang of Ind remain	Sujeogsa Daeungjeon	Bonggogsa Daeungjeon	Sinleugsa Geungnakbojeon
Front	Eokan	2,300	2,490	2,580	3,676
	Eokan	2,200	2,370	2,480	3,505
Side	Hyeopkan	2,200	2,370	2,480	3,505
Ratio		1.045	1.050	1.040	1.048

**3.2.3 총주 승선사지 1차 중건 금당지**

승선사지 1차 중건 금당지의 ③정면어칸길이/정면 협칸길이의 비율은 1.600,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은 1.600이다.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과 가장 유사한 비율로 분석된 현존하는 건물로는 정수사 대웅전, 장곡사 하대웅전 등 있고 이중 서동사 대웅전이 1.722로 가장 유사 사례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세 사례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분석된 현존하는 불전 건물로는 정수사 대웅전, 장곡사 하대웅전, 서동사 대웅전등 있고 이중 정수사 대웅전이 1.413으로 가장 유사한 사례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그조차 범위가 큰 편이다.

결과적으로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과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현존 건물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서동사 대웅전, 장곡사 하대웅전, 정수사 대웅전 등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고 모두 유사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Table 13.** Bubdang of Ind remain in Seungseonsaji, Front Eokan & Front Hyeopkan

Name of Building		bubdang of Ind remain	Seodongsa Daeungjeon	Janggogsa HaDaeungjeon	Jeongsusa Daeungjeon
Front	Length	9,000	8,040	8,656	9,200
	Eokan	4,000	3,720	3,678	3,900
	Hyeopkan1	2,500	2,160	2,490	2,650
	Hyeopkan2	2,500	2,160	2,488	2,650
	Ratio	1.600	1.722	1.477	1.471

**Table 14.** Bubdang of Ind remain in Seungseonsaji, Front Eokan & Side Hyeopkan

Name of Building		bubdang of Ind remain	Jeongsusa Daeungjeon	Janggogsa HaDaeungjeon	Seodongsa Daeungjeon
Front	Eokan	4000	3900	3678	3720
	Eokan	2500	2760	2785	2790
Side	Hyeopkan	2500	2760	2780	2790
Ratio		1.600	1.413	1.320	1.333

**3.3 소결**

결과적으로 보면 대구 동구 북지장사 대웅전 상층 건물지와 비슷한 현존 사례는 오어사 대웅전이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응석사 대웅전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비암사 대웅전은 절대적 규모중에서 비율과 상대적 규모에서 ④정면어칸길이/측면 칸길이의 비율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안동 선찰사지 법당은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상원사 대웅전이 유사하며 절대적 규모에서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과 상대적 규모의 ③정면어칸길이/ 정면협칸길이의 비율에 대한 항목은 대적사 극락전이 유사하다.

승선사지 대웅전은 서동사 대웅전이 ①면적,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 ④정면어칸길이/측면 칸길이의 비율의 항목에서 유사하며 정수사 대웅전은 ②정면길이/측면길이의 비율, ③정면어칸길이/정면 협칸길이의 비율,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의 항목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그 차이가 큰 편이다. 상대적으로 서동사 대웅전이 좀 더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3x2칸 주불전 발굴지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고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굴지와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여 본다면 발굴지의 자료로서, 나아가서 복원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3장에서 조사한 방법론에 의하여 발굴지와 유사도가 높은 현존 건물을 2개를 선택하였다. 이 사례들에 대한 특징을 찾아 비교해 본다면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4.1 대구 동구 복지장사 대웅전 상층 건물지의 유사사례

###### 4.1.1 사례

오어사 대웅전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다. 1741년(영조 17)에 중수하였다. 오어사 대웅전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주초 원형기둥, 5량 구조이다. 천정은 우물반자로 마감하고, 겹처마 팔작지붕 다포 형식이다[8].

웅석사 대웅전은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평리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방화로 소실된 이후 1736년(영조 12)과 1899년(광무 3)에 중수, 1983년에 개수하였다. 웅석사 대웅전은 자연석 기단위에 자연석주초 원형기둥, 5량구조이다. 천정은 우물천정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정면과 우측면에는 겹처마, 좌측면과 배면에는 홑처마로 구성, 다포 형식이다[9].

###### 4.1.2 고찰

오어사 대웅전, 웅석사 대웅전의 경우 모두 팔작지붕, 5량, 겹처마, 다포양식으로 지붕, 처마, 가구구조가 비슷하고 웅석사 대웅전의 경우 정면과 우측면에는 겹처마이지만 좌측면과 배면에는 부연이 없는 홑처마로 구성점이 특이하다. 오어사의 경우 고주가 있고 웅석사는 고주가 없다. 웅석사 대웅전의 처마의 경우 정면과 우측면에는 겹처마, 좌측면과 배면에는 부연이 없는 홑처마로 구성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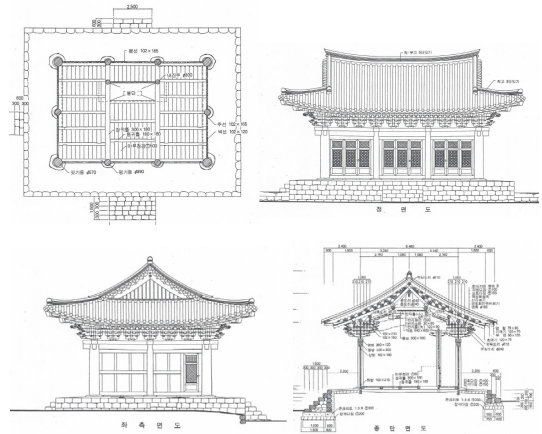


Fig. 4. Oeosa Daeungjeon (Plane, Elevation, Side, Longitudinal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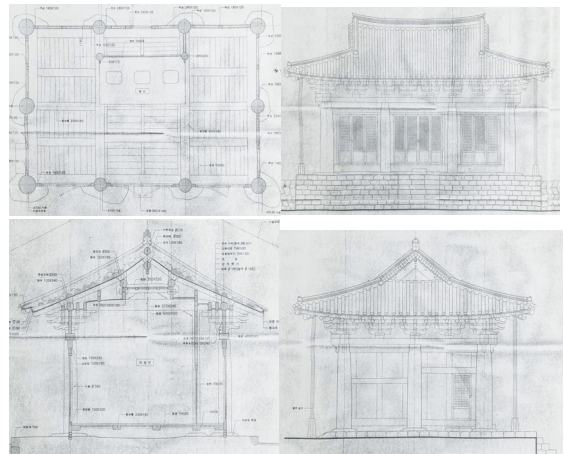


Fig. 5. Eungseogsa Daeungjeon (Plane, Elevation, Side, Longitudinal section)

Table 15.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in

Name of Building	Oeosa Daeungjeon	Eungseogsa Daeungjeon
Roof	Hip & Gable-Roof	Hip & Gable-Roof
Eave	Twofold Eaves	Mixed
Structure	5-Ryangga	5-Ryangga
Interior Tall Column	Y	N
Bracket Sets	Dapo	Dapo
Ceiling	Compartment Ceiling	Coffered Ceiling
Area	62.985	61.310
Stylobate	Natural Stone	Post-lintel Construction

## 4.2 안동 선찰사지

### 4.2.1 사례

고창 상원사 대웅전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1650년(효종 1), 1734년(영조 10), 1848년(헌종 14), 1947년에는 중수하였다. 상원사 대웅전은 자연석 기초위에 자연석주초 원형기둥 5량구조이다. 천정은 우물천정이다. 지붕은 겹처마맞배지붕, 주심포계 익공양식이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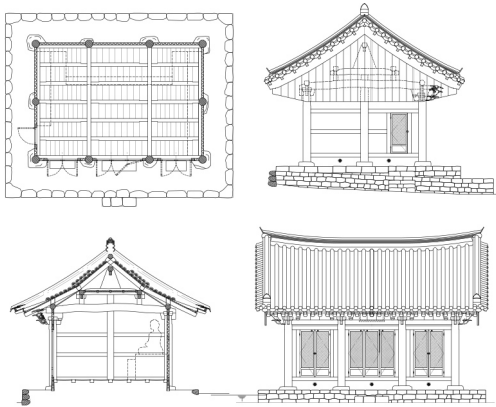


Fig. 6. Gochang Sangwonsa Daeungjeon (Plane, Elevation, Side, Longitudinal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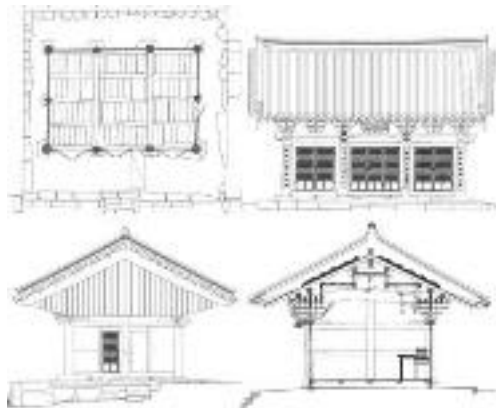


Fig. 7. Cheongdo Daejeogsa Geungnakjeon (Plane, Elevation, Side, Longitudinal section)

청도 대적사 극락전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에 위치하고 있다. 1689년(숙종 15)에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에 18세기경에 중건된 건물로 추정되고, 1974년

에 보수공사를 하였다. 대적사 극락전은 전면 2층기단, 측면과 후면은 단층기단이다. 자연석 기초위에 자연석주초, 원형기둥 2층가 5량구조로 고주 없이 대량과 종량을 걸었다. 천정은 우물천정이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 다포형식이다[11].

### 4.2.2 고찰

상원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의 경우 모두 맞배지붕, 5량, 겹처마, 고주가 없는 구조의 상의 공통점이 있고 단지 상원사 대웅전은 익공, 대적사 극락전은 다포 양식, 천정은 반자천정과 우물천정의 차이가 있다.

Table 16.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in

Name of Building	Sangwonsa Daeungjeon	Daejeogsa Geungnakjeon
Roof	Gabled-Roof	Gabled-Roof
Eave	Twofold Eaves	Twofold Eaves
Structure	5-Ryangga	5-Ryangga
Interior Tall Column	N	N
Bracket Sets	Ikkong	Dapo
Ceiling	Compartment Ceiling	Compartment Ceiling
Area	30.415	31.773
Stylobate	Natural Stone	Post-lintel Construction
Cornerstone	Fill	Fill

## 4.3 송선사지 법당의 유사사례

### 4.3.1 사례

송선사지는 서동사 대웅전과 정수사 대웅전이 유사하다. 서동사 대웅전은 전남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에 위치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찰 전체가 소실될 위기에 대웅전만 화를 면한 것을 보고 갈천사라 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고종 7년(1870)에 고쳐 다시 세웠으며 1990년에는 보수하였다. 서동사 대웅전 자연석 기초위에 자연석주초, 원형기둥으로 민흘림이 있다. 5량 구조이다. 지붕은 맞배지붕 겹처마로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았다. 익공양식이다[12].

정수사 대웅전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에 위치해 있다. 중종 19년(1524) 중창하면서 정수사라 하였다. 숙종 34년(1708)중수 하고, 1987년에 보수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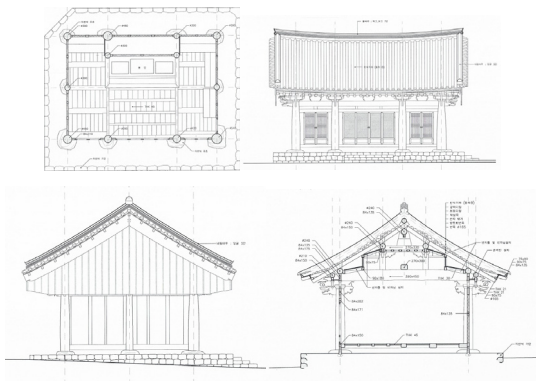


Fig. 8. Seodongsa Daeungjeon (Plane, Elevation, Side, Longitudinal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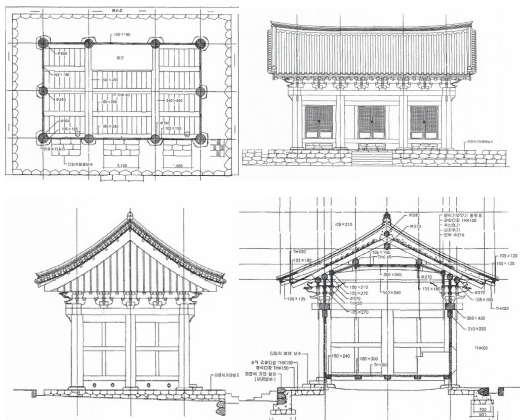


Fig. 9. Jeongsusa Daeungjeon (Plane, Elevation, Side, Longitudinal section)

Table 17. Daeungjeon of Upper layer remain in

Name of Building	Seodongsa Daeungjeon	Jeongsusa Daeungjeon
Roof	Gabled-Roof	Gabled-Roof
Eave	Twofold Eaves	Twofold Eaves
Structure	5-Ryangga	5-Ryangga
Interior Tall Column	Y	N
Bracket Sets	3-Ikkong	Dapo
Ceiling	Coffered Ceiling	Compartment / Oblique ceiling
Area	44.863	50.784
Stylobate	3-Long Pedestal Stone	Natural Stone
Cornerstone	Fill	Fill

#### 4.3.2 고찰

서동사 대웅전과 정수사 대웅전은 맞배지붕, 5량, 겹처마가 구조의 상의 공통점이 있고, 서동사 대웅전은 고주가 있고 3익공에 천정을 반자천정이고, 정수사 대웅전은 고주가 없고 다포양식에 천정의 경우 불단의 중앙부는 우물천장, 주위로는 판재로 빗천장을 혼용하여 사용한 특이점이 있다.

#### 4.4 소결

이 연구에서는 절대규모와 상대규모로 나누어 항목별로 구분하여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의 항목에 서로 다른 현존 사례가 유사하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거의 유사해 보이는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의 개념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구 동구 북지장사 대웅전 상층 건물지와 오어서 대웅전과 같이 두 개념이 동시에 유사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하여 안동 선찰사지 법당이나 송선사지 법당의 경우는 절대규모와 상대규모가 모두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건축계획에서 절대규모와 상대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고려해야만 평면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북지장사 상층 건물지는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의 모든 측면에서 오어서 대웅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응석사 대웅전도 그 구조와 형식에서는 유사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안동 선찰사지는 고창 상원사 대웅전이나 청도 대적사 극락전과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지장사 상층 건물과는 다르게 많은 항목에서 유사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가 서로 다른 계획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송선사지 법당은 서동사 대웅전과 정수사 대웅전 유사성이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여서 3개의 사례 중에서는 가장 유사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 3x2칸 주불전 발굴지와 평면 계

획상에서 유사성이 높은 현존하는 주불전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찾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는 기초연구이다. 유사성을 찾아내는 비교 방식과 비교 항목을 정하는 방법론의 부분과 유사성이 높은 현존 불전에 대한 건축 형식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면 계획의 구성요소를 절대규모와 상대규모로 나누어 항목을 검토하였다. 최소 규모의 주불전이기에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는 ①면적, ②정면길이/측면길이, 상대적인 규모는 ③정면어칸길이/정면협칸길이의 비율 ④정면어칸길이/측면칸길이의 비율을 요소로 찾아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주불전 평면 계획에서 절대규모와 상대규모는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서로 다르게 고려하는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소의 평면 계획을 가진 3x2칸 주불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평면 계획의 비교 항목을 확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평면 계획이 아닌 위치, 건립연대, 창건주 등 다른 항목까지도 확장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존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발굴지와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존 사례 간에도 각 항목별로 얼마나 유사한지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 즉 세 발굴지의 유사 사례가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사성이 적은 경우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사성이 적더라도 현존 사례 중에서는 가장 유사한 사례임을 확인하고 복원에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현존자료의 계획적인 측면까지도 비교할 수 있으며 만일 복원을 한다면 유사한 항목이 많다면 그 유사성에 따라서 각각의 현존 건물 사례를 비교 항목별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하나의 발굴지에 대하여 다양한 유사사례를 기초자료로서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사례들을 상호 비교한다면 보다 많은 자료들을 모을 수 있으며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발굴지에 대한 가상의 복원을 포함한 복원을 시도한다면 현존자료의 선택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로서 더욱 발전시킨다면 보편적이면서도 확장성이 높은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1] D. W. An, "Relationship and its change between location of Altar and wooden structure of Central halls in Korean Buddhist temples", Yon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1.
- [2] H.C. Kim, D. W. An,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Basic Data System for Restoration of 3x3 Kan Central Hall Remains of Buddhist Temple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 9, pp. 163-177,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9.163>
- [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ourcebook of excavation research of Architectural Site - Buddhist temples I, II, III",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
- [4] S. C. Park, "The Study of Structure and Design in three-bay-square Buddhist Hall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2001.
- [5] Daegu City hall, "Excavation Report of Daeungjeon remains - Palgongsan Bugjijangsa", Daegu City hall, 1996.
- [6] Museum of Andong University, "Excavation Report of Cultural Remains in Imhadam - submerged districts", pp256-284, 1989.
- [7] Museum of ChungChung University, "Trial and 1~4th Excavation Report of Seungseonsaji in Chungju", 2001.
- [8]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storation report of Cultural heritage in 2001", 2007.
- [9] National Archives of Korea, "Drawing for repair of Eungseogsa daeungjeon", 1989
- [10] Jeonrabukdo, Drawing for repair : Gochang Sangwonsa daeungjeon. 2018.
- [1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pair Report: Daejeogsa geungnaekjeon", 2005
- [12] Sampung Architect office, Drawing for repair : Seodongsa daeungjeon, 1999.
- [13] Gangwhagun, "Survey Report :Jeongsusa daeungjeon", 2004.

김 환 철(Hwan-Chol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8년 4월 ~ 2009년 6월 : 국립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2014년 6월 ~ 현재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2016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건축문화재

안 대 환(Dai-Whan An)

[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학박사)
- 1999년 5월 ~ 2013년 1월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문화재, 한국건축사